

22-04,5,6 2022 년 6 월 26 일 밴쿠버 김은중이유진선교사 편지

1. 선교현장에서 전한 말씀 나눔(큰 잔치)

"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눅 18:18)

지난 3 개월 동안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관리는 부자이면서 관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이라고 했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단지 선한 선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가지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도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큰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며 주님께 인정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일 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시선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구원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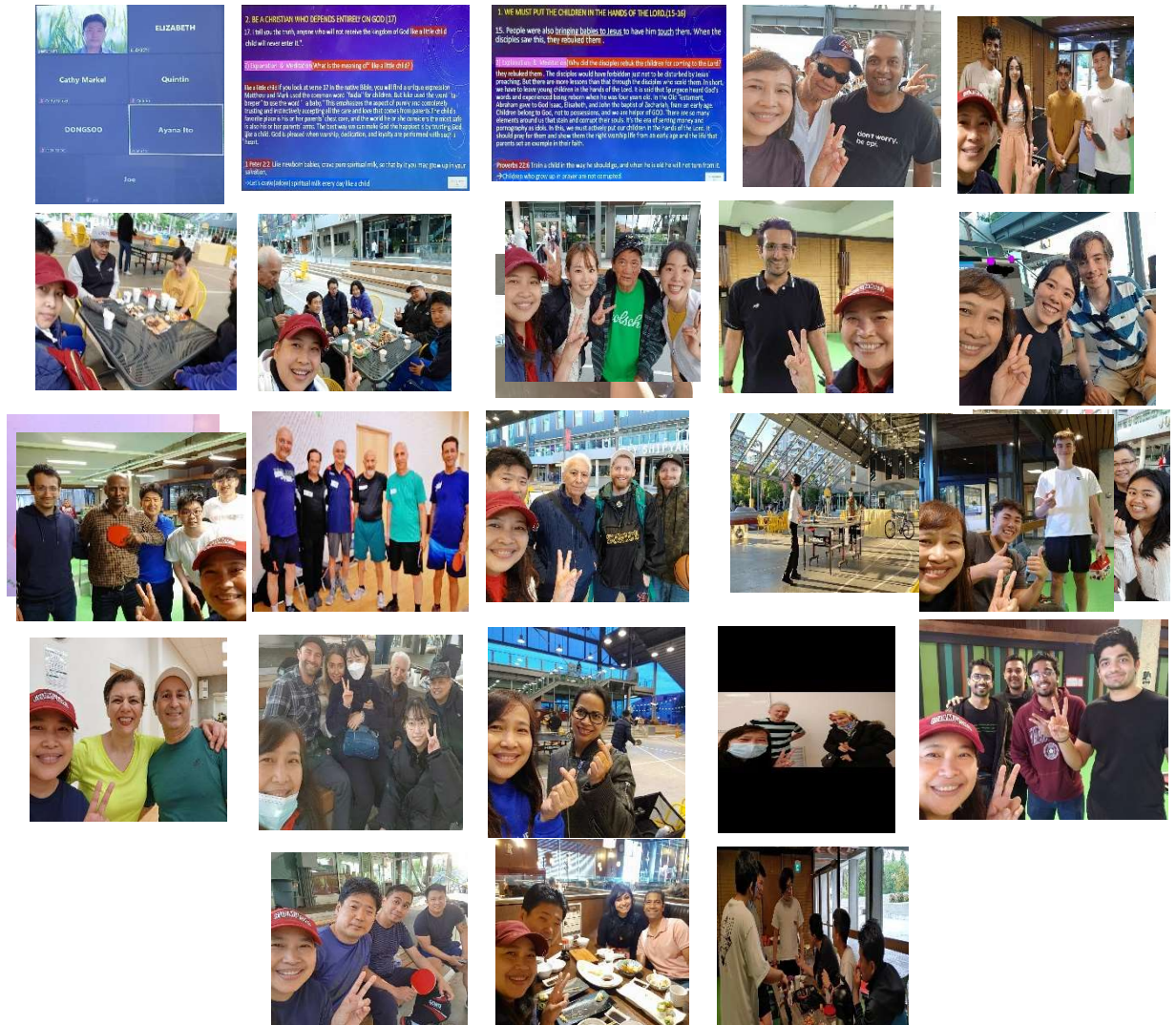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참 무섭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주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옛습관이 죽고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주관하는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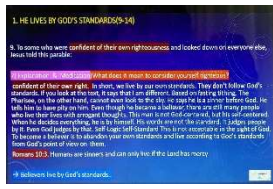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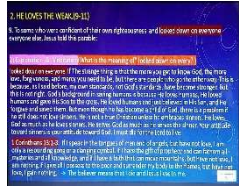
항상 예수님 중심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생을 소유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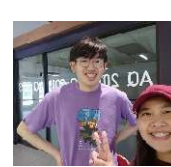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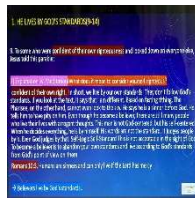
2. 4-6 월 사역을 돌아보며



1)







모두 35 명 정도가 참석했고 트로피와 각종 음식 준비하여 6 시간 정도 보냈습니다. 일단 성경공부와 예배 초청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관계성이 확고해 졌기에 7 월 부터는 성경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 사역에 있어서 SHIPYARD 핑풍사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5 명정도 모여서 6 시간 대회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이란 할아버지들이 함께 했고 필리핀 형제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회비를 받지 않고 대회를 준비했기에 경비 지출이 있었지만 그동안 핑풍 사역의 총 집결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핑풍대회에 참석한 나라는 10 개국 정도이고 영어라는 공통 언어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언어 탁구가 있어서 모두 맘을 쉽게 열고 교제 하게 되었고 1 차적으로 핑풍 미니스트리를 통해 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가족 공동체 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것 같습니다.

장차 핑풍사역이 교회 예배로 연결되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핑풍으로 보낸다고 해도 그들의 영혼은 변화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압니다. 1 차 단계가 공동체 형성이었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들을 교회 예배 초청과 프로그램초청을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7 월부터 공원에서 드리는 야외예배에 70 세 이상되는 할아버지 4 분을 집중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밴쿠버에서 핑풍 미니스트리와 교회 사역을 이루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기도제목은 후원이 좀더 모집되어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한국교회 가운데 후원교회와 밴쿠버에 개인 후원자들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한이는 올 1 년만 더 공부하면 졸업합니다. 알바하고 공부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지만 우수한 성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전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간호사와 대학원공부를 병행합니다. 쉽지 않는 일들인데 강직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걱정이 되지만 본인이 하고픈 일이기에 멈추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부족함 없는 사모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막내 형준이는 토론토에서 1 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방을 옮겨야 할 문제가 생겨서 기도제목이 됩니다. 학교근처 아니면 기숙사로 거처가 마련되기를 기도합니다. 작년에 장학금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 해에도 장학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7 월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주안에 행복한 교회의 줌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은혜속에서 성장하도록 동시에 대면예배가 3 시에 잘 이루어 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캠퍼스 그룹 성경공부 반이 만들어 지도록 기도 바랍니다. 8 명 정도를 놓고 기도중입니다. 워낙 바쁜 생활가운데 있는 학생들이지만 생명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3) Shipyard 핑퐁 미니스트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레크레이션 센터에서는 토요일에 주일과 평일에는 shipyard 에서 교제를 이룹니다. 새로운 사람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도록 7 월에 피크닉이 준비 되었는데 이 속에서 가족공동체가 견고해 지도록

4) 온 가족이 성령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손에 맡겨진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멀리 있고 함께 있지 못하지만 온전히 주안에서 하나되어 서로 기도하고 주님의지하는 가족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밴쿠버에서 김은중 이유진 선교사 드립니다.